

3월 둘째 주
고난 속에서 빛나는 우정

■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17절 (3월 8일 본문)

■ 포인트: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진 좋은 친구 관계는 어려울 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우정을 빛나게 해요.

≡ 1. 찬양

(새 434)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 2. 기도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 3. 말씀

사무엘상 20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7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우리말성경>

17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어 설명>

* 맹세: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 본문 이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돕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요나단과 다윗은 함께 고난을 극복해 나갔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어요.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를 빛나게 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누구냐고 묻자 다윗은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해요. 다윗과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님을 알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어요(18:1).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의형제처럼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언약을 맺었지요. 요나단은 왕족을 상징하는 자신의 겂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 활, 띠를 언약의 증거로 주었어요(18:3~4).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의 신하 또는 자신의 신하가 아닌 '친구'로서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을 때(19:1),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은 죄가 없으니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지요(19:6). 그러나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요나단은 다윗이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어요.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미워할 수 있었고, 요나단도 아버지의 대적자로 등장한 다윗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둘은 언약에 따라 끝까지 우정과 신의를 지켰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 편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 주시는 날, 자신과 자기 집안에 대한 의리를 지켜 줄 것을 맹세하게 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고(20:42)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실했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 즉 우정도 계속될 수 있었어요. 이후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길 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해 주었어요(23:15~18).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좋은 친구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 더 힘을 발휘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빛나게 해요(잠 27:17).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삼상 18:1).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겂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삼상 18:3~4).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삼상 19:1).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삼상 19:6).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삼상 20:42).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삼상 23:15~18).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 27:17).

≡ 4. 나눔

1)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우정을 보였나요?(8~16절 참조)

■ 저학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어떤 친구였나요?

■ 유아·유치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였나요?

▣ 질문 가이드

사무엘상 20장 8~16절을 찾아 함께 읽어 보세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다윗(20:3)과 요나단의 대화를 읽으며 느낀 점을 먼저 나누어도 좋아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요나단과 다윗은 왕과 신하 관계였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윗을 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모든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에 이들의 우정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이 났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며 아꼈고 다윗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끊어 버리시는 날에 자기 집안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공휼을 구했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단순한 친구로서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 뜻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는 동역자로서의 친밀한 사귄이었어요.

2)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비전을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친구가 있나요? 아직 없다면, 그런 친구가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 저학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직 없다면 그런 친구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 유아·유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믿음의 친구가 아직 없다면 그런 친구가 생기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 질문 가이드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믿음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세요. 또 내가 다른 이에게 진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자며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친구를 갖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 감사하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친구,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하실 친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 보세요.

6. 기도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처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 주세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먼저 찾아가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해 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7. 가족 미션

<나의 다윗/요나단에게 편지쓰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친구/동역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보세요. 혹은 격려와 힘이 필요한 친구/형제자매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사랑을 전해보세요.